

# KIA 12전 12승... KS 불패신화는 계속된다

## 한눈에 보는 KS 1~5차전

2박 3일 기다림 끝 1차전 역전 승  
불붙은 방망이에 대량 득점 성공  
네일·양현종 등 굳건히 마운드 지키  
데뷔 첫 만루포 김태균 역전타까지  
김선빈 미친 타격감...우승 이끌어

◇비가 변수가 된 1차전, '눈치 싸움' 승리 이끈 전상현

지난 21일 시작된 2024 한국시리즈는 시작부터 '가을비'라는 변수를 만났다. 5회까지 0-0의 팽팽한 흐름이 전개된 이날 6회초 KIA 선발 제임스 네일이 삼성 선두타자 김현곤에게 솔로포를 맞으면서 '0'의 균형이 깨졌다. 네일이 불넷까지 허용하자 장현식으로 마운드가 교체됐고, 다시 한번 불넷이 나왔다.

김영웅에게도 초구 불이 들어가면서 1볼, 그런데 비가 분위기를 바꿨다. 굵은 가을비에 심판진이 경기를 중단시켰고 계속 많은 비가 내리면서 결국 경기는 이날 재개되지 못했다.

한국시리즈는 물론 포스트 시즌 사상 첫 서스펜디드 게임이 선언됐고, 22일에도 경기가 비로 순연되면서 23일 '2박 3일'의 1차전이 펼쳐졌다.

6회 무사 1·2루에서 재개된 경기. KIA 이범호 감독의 선택은 투수 전상현이었다. 전상현의 초구에 김영웅은 번트를 시도했고, 공은 포수 김태균 바로 앞에 떨어졌다. 3루로 공을 던져 원아웃을 만든 KIA는 남은 아웃카운트 2개를 실점 없이 처리한 뒤 7회말 4점을 뽑아내면서 승부를 뒤집고 5-1 역전승을 거뒀다.

### ◇불붙은 방망이, '슈퍼스타' 김도영

서스펜디드 승부 끝에 1차전을 뒤집은 KIA는 1회부터 시원한 공세를 펼쳤다. 박찬호의 불넷으로 시작한 1회말 소크라테스의 안타가 이어졌다. 2루 견제가 뒤로 빠지면서 무사 2·3루의 기회를 잡았고, 김도영이 타석에 섰다.

김도영은 큰 욕심 없이 팀배팅을 하면서 2루 땅볼을 기록, 3루에 있던 박찬호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이어 최형우와 나성범의 연속 안타 뒤 김선빈이 2루타로 조반 폭격에 나섰다. 이우성의 안타까지 이어지면서 KIA는 1회에만 5점을 뽑으면서 8-3 승리를 거뒀다.

KIA가 1회 잡은 리드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완성하면서 김도영은 결승타 주인공이 됐다. 김도영은 2회말에는 이승민을 상대로 우측 담장을 넘기면서 한국시리즈 첫 홈런도 장식했다. 양현종은 6회 1사까지 8피안타는 남겼지만 2실점(1자책점)으로 마운드를 지키면서, 36세 7개월 22일이라는 한국시리즈 국내 최고령 선발승 새로운 기록을 작성했다.

◇홀극장 만만 '홈런단', 삼성 그리고 레이스  
플레이오프 MVP에 빛나는 레이스는 한국시리즈에서도 특급 피칭을 이어갔다. 정규시즌 3번의 만남에서 KIA 타자들을 상대로 8.31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던 레이스였지만 이날은 달랐다. 뭉뚱 커터를 준비했던 KIA 타자들을 상대로 체인지업

## 2024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7전4승제

<b>KIA</b>	VS	<b>삼성</b>
*1차전 21일(월) 광주	★5 : 1	
2차전 23일(수) 광주	★8 : 3	
3차전 25일(금) 대구	2 : 4★	
4차전 26일(토) 대구	★9 : 2	
5차전 28일(월) 광주	★7 : 5	

연합뉴스

자료:한국야구위원회(KBO)

으로 타이밍을 뺏으면서 나홀로 7이닝을 지켰다.

안방으로 돌아온 삼성 타자들의 방망이도 거침없이 돌아갔다. 3회말 이성규를 시작으로 김영웅, 김현곤, 박병호가 담장을 넘기면서 KIA를 흔들었다. 1차전 승리의 주역 전상현은 7회말 공 2개에 김현곤과 박병호에게 한국시리즈 통산 9번째 백투백 홈런을 허용하고 물러났다.

KIA 선발 에릭 라우어가 5이닝 동안 8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면서 분전했지만 2개의 홈런에 2실점했고, 레이스의 호투에 묶인 KIA가 2점을 내는 데 그쳤다.

### ◇프로 첫 만루포, 김태균의 포효

1차전 선발로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던 KIA 네일과 삼성 원태인이 4차전에서 다시 맞붙었다. 4차전 승부에서는 '2번 김선빈' 카드에 시선이 쏠렸고, 전략은 적중했다. 1회초 박찬호가 내야안타로 물고름을 뜬 뒤 김선빈이 10구까지 가는 승부를 펼쳤다. 김선빈은 10구째 좌측 펜스 패리는 2루타까지 기록하면서 원태인을 흔들었다.

김선빈을 앞세워 선취점을 뽑은 KIA는 3회말 1사 만루에서 원태인을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김태균의 프로 첫 만루홈런이 한국시리즈에서 장식됐다.

김태균은 삼성 두 번째 투수 송은범을 상대로 좌측 폴 안으로 공을 땀고 포효했다. 한국시리즈 역사상 5번째 만루포였다. KIA는 소크라테스의 투런포까지 더해 전날 패배를 홈런포로 설욕했다. 마운드에서는 네일의 호투가 눈부셨다.

### ◇간절함으로 만든 우승, 모두가 주인공

2017년 KBO 역사에 없던 통합 MVP에 등극했던 양현종이 다시 마운드에 오른 5차전. 초반 흐름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1회부터 디아즈에게 투런포를 맞은 양현종은 김영웅에게 백투백 홈런을 허용했다. 3회에 다시 디아즈에게 연타석 홈런까지 허용하면서 양현종의 무대가 일찍 끝났다. 양현종이 일찍 물러난 마운드에서 처음 한국시리즈를 경험한 투수들은 짐작했다. 김도현-곽도규-장현식-이준영-전상현-정해영이 승리에 필요했던 남은 아웃카운트를 더해주면서 KIA는 '불패 신화'를 잇고 12번째 우승컵을 챔피언스필드에서 들어 올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8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된 '2024 프로야구 KBO리그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5차전 KIA타이거즈와 삼성라이온즈의 경기. 6회말 1사 1, 3루에서 김태균이 1타점 역전 안타를 친 뒤 이현곤 주루 코치와 기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선수 장점 끌어낸 '형님 리더십' 빛났다

### 초보 감독으로 통합우승 일군 이범호

광주를 제2의 고향으로 삼은 '대구 소년'이 사령탑으로 다시 한번 한국시리즈 정상에 섰다.

KIA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이 28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2024 KBO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7-5 승리를 지휘하고 우승 행가대를 받았다.

'2박 3일'의 1차전을 역전승으로 장식한 뒤 2차전까지 잡았던 이범호 감독은 삼성 안방에서 3차전은 내렸지만, 분위기가 내주지는 않았다.

4차전에서 '최고집' 최형우가 허리 통증으로 빠지자 대거 라인업에 변화를 줬고, 2번 김선빈이 삼성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그리고 안방으로 돌아와 치른 5차전 승부에서 선발 양현종이 디아즈에게 연타석 홈런을 맞은 등 2.2이닝 5실점으로 흔들렸지만 빠르게 마운드를 움직이면서 결국 역전까지 이뤄냈다.

이범호 감독에게 광주는 가장 오랜 시간 야구를 한 '야구의 고향'이다. 2000년 대구고를 졸업하고 한화 유니폼을 입으면서 프로 생활을 시작하는 그는 2010년 일본 소프트뱅크를 거쳐 KIA 유니폼을 입고 국내에 복귀했다.

2011년 KIA에서 새로운 야구 인생을 시작한 이범호 감독은 타이거즈 '캡틴' 타이틀을 달기도 했다. 2017시즌에는 팀의 베테랑으로 통합 우승

순간을 경험했다. 만루 상황에서 17차례 공을 담장 밖으로 날리면서 'KBO 역대 통산 만루홈런 1위' 기록을 가진 그는 2017시즌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도 승리의 발판이 된 만루포를 작렬했다.

그의 선수 생활 마지막도 특별했다. 2019시즌을 끝으로 현역 생활을 마무리한 이범호 감독은 상대한 은퇴식을 갖고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다.

은퇴 후 일본 프로야구(NPB) 소프트뱅크 호크스와 메이저리그(MLB) 필라델피아 필리스에서 코치 연수를 받으면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21시즌에는 퓨처스 총괄코치로 퓨처스 선수단을 지휘하기도 했다.

총괄 코치로 팀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올 시즌 타이거즈 제11대 감독으로 선임됐다.

전임 사령탑이 불명예스러운 일로 스프링캠프 출발을 앞두고 자리에서 물러났던 상황이었지만, 선수-지도자로 누구보다 팀을 잘 알았던 이범호 감독은 흔들림 없이 팀을 이끌어갔다.

'주장 같은 감독'을 이야기했던 그는 약속대로 선수들의 면면에 맞춰 단점이 아닌 장점에 집중해 전력을 극대화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공격하고 수비하고 달릴 수 있게 했다.

조용히 전력을 탐색하면서 선수들과 신뢰를 쌓았던 그는 울스타브레이크를 전후로 본격적인 색을 보이면서 1위 질주를 이끌었다. 월 크로우를 시작으로 이리리, 윤영철에 이어 제임스 네일까

지 부상으로 이탈하는 최악의 상황도 극복했다. 144경기의 결승선을 보면서 엄격하게 부상을 대하면서 긴 호흡으로 달리면서 부상 약재까지 믿고 정규시즌 우승을 이뤘다. 그리고 한국시리즈를 4승 1패로 마무리하면서 '불패 신화'를 이었다.

광주는 이범호 감독에게 고향이나 마찬가지다. 가장 오랜 시간 광주에서 야구를 했다. 두 아이도 광주에서 낳았다. 타이거즈 왕조 시절을 지켜보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야구 도시 광주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

이범호 감독은 5차전에 앞서 "(광주에서 유일하게 우승한 1987년은) 6살 때라 기억이 없지만, 1·2학년 때부터 야구에 관심을 가지면서 컸기 때문에 타이거즈라는 팀이 어떤 위대한 팀인지 알고 있다"며 "광주에서 우승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달려왔고, 14년 동안 선수로 지도자로 생활하고 있다. 광주에서 꼭 우승 트로피를 들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17년에도 광주에서 우승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5차전에서 어떻게든 끝내려고 마음 먹었다. 광주에서 우승하고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싶었다.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그는 5차전 초반 위기를 딛고 승부를 뒤집으면서, 광주에서 사령탑 첫해 통합 우승 감독에 등극했다. /김여울 기자 wool@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 과	모집인원	
		수 시	정 시
인문사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사범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 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4	21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일: 2025. 1. 13.(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www.kwangshin.ac.kr